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트럼프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구상 반대한다!

2월 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구상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인종청소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가자전쟁이 끝나면 “그곳에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가자지구 북부와 이집트 국경 완충지대 ‘필라델피 회랑’ 등을 이스라엘에 합병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를 위해 정부 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그곳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77년 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나 타국을 전전하는 난민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사람들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 염원을 갖고 80년 가까이 끈질기게 저항해 온 것입니다.

인종청소

트럼프는 2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내쫓겠다고 합니다. 이런 인종청소는 가자지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도 유례없는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서안지구 제닌, 툴카렘, 투바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건물, 수도관,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안지구 주민 4만여 명을 강제 이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번 강제 이주 규모는 2002년 제2차 인티파다(항쟁) 당시 이스라엘군 작전 때보다 더 큼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들은 2월 18일 레바논과의 휴전 시한이 만료됐지만 합의 사항인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바논 남부 5개 지역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UN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이스라엘을 확고히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중동의 “평화 중재자”를 자처한 트럼프는 이제 가자 휴전도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와 접한 이집트, 서안지구와 접한 요르단의 지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지배자들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그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구상에 동조한다면, 그들은 자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세계적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10월 11일 국내 첫 긴급 집회를 시작으로,

재한 팔레스타인·아랍인들과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매주 연대 집회·행진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인종청소 계획에 맞서 더 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인종청소와 서방과 친서방 정부들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2·23 집중 행동의 날

트럼프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구상 반대한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공격 멈춰라!

🕒 **2월 23일(일) 오후 2시**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 영어, 아랍어, 방글라,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등 번역 제공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앞 등 도심 행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직후 10월 11일 한국에서 첫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열어 결성된 연대체입니다. ‘팔연사’는 재한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이주민, 대학생, 국내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이유로 77년간 계속돼 온 팔레스타인 점령과 인종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항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해 국제적 연대 시위와 행동을 벌였습니다. ‘팔연사’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로서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왔습니다.

‘팔연사’는 현재까지 매주 주말 서울 도심 집회를 72차례 열어 왔습니다.(2025년 2월 22일 현재) ‘팔연사’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수원, 원주 등 지역과 거리, 여러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럼, 영화 상영회,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여러 지역 집회, 다양한 활동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도 팔로우하세요!

웹사이트

